'천만송이 국화축제' 준비 총력

익산시, 내달 18~27일 축제 앞두고… 축제 추진 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영석 부시장 주재로 '제21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추진 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축제 추진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안전 관리, 개막식, 홍보, 노점상 관리, 교통 관리, 의료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공연 등 준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올해 축제는 '천만송이 국화로 정원을 꽃 피우다'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근린공원, 미륵사지, 익산역 등 4개소에서 분산 전시가 진행된다.

관광객 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주말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행사 10일간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행사장에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축제장 인근 주차장 확대, 대형 디지인 천막 설치, 휴게공간 확대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쓴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부스운영 설명회에 참석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최소화 캠페인을 펼치는 등 친환경적인 축제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영석 부시장은 "도심형 정원축제의 특색을 살린 국화작품 전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보완해 전국 대표 가을축제의 명성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29회 익산시민대상 수상자 7인 선정

문화체육 · 산업 · 사회봉사 · 효행 · 친환경 · 농업 · 교육 등 7개 부문

지역발전 노력 공로 인정… 내달 3일, 익산시민의 날 행사서 시상식

익산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공헌한 시민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익산시민대상 전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9회 익산시민대상' 수상자 7인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3일에 개최하는 '제29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익산시민대상'은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익산시민을 찾아 수여하는 익산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는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체장, 학교장,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시민 등의 추천을 통해 총 19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부문별 심사위원회와 전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문화체육대상 이도연 △산업대상 박주성 △사회봉사대상 안태규 △효행대상 유부열 △친환경대상 유칠선 △농업대상 김훈 △교육대상 이정선 등 7개 분야 7명이 선정됐다.

이도연 문화체육대상 수상자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핸드사이클선수로 파리 패럴림픽에 핸드사이클 국가대표로 출전해 여자 개인 도로에서 10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도 여자 개인 도로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 수상으로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박주성 산업대상 수상자는 ㈜다사랑 회장으로 30년 이상 식품가공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안태규 사회봉사대상 수상자는 익산시 자율방범대연합회 부회장으로 치안유지 방범활동, 청소년 보호활동,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의 큰 귀감이 됐다.

문화체육대상 이도연

산업대상 박주성

사회봉사 안태규

효행대상 유부열

친환경대상 유칠선

농업대상 김훈

교육대상 이정선

유부열 효행대상 수상자는 영등1동 통장으로 치매증상이 있던 친정어머니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유칠선 친환경대상 수상자는 만경강에 서식하는 조류 전수조사를 수행해 만경강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익산문화관광해설사와 전주동물원 생태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훈 농업대상 수상자는 익산시 귀농귀촌협의회장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과 멘토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이정선 교육대상 수상자는 이리별나라어린이집 원장으로 40년간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며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발전에 노력해 왔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민대상은 향토의 명예 선양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익산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발굴해 자긍심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27~28일

관내 60개 사회복지기관 · 단체 · 시민 참여

군산시 소재 60개 복지시설·단체가 참여하는 '2024 군산 희망복지박람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월명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희망복지박람회는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복지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9개 통합부스가 운영되며, 참여 시설 및 단체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는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이후 박람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부스별 체험행사 △퀴즈 N 퀴즈대회 △서바이벌 골든벨 △이야기(토크) 콘서트 △청소년 공연 및 서바이벌 랜덤 플레이 댄스, △사회복지종사자 장기 자랑 등 재미가득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기관·사회적 기업의 생산 물품 전시와 먹거리 부스도 마련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희망복지박람회가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 "시민들이 박람회를 통해 유용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용승 회장도 "박람회를 통해 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시민들 가까이에 있음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군산시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나서

민 · 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 적치물 제거

익산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나섰다.

시는 19일부터 전북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익산시민경찰연합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4개 반 30명과 차량 4대가 투입돼 정비 활동을 펼쳤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익산역과 터미널 등 주요 사거리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과 무분별하게 걸린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제거했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적치물을 정비했다.

익산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김석우 도로관리과장은 "광고주께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군산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주택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28호(공시 95호 / 미공시 33호)와 공동주택 1,334호이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기업 납부 독려

익산시가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기업의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납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전화, 방문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장기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차량,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